산림환경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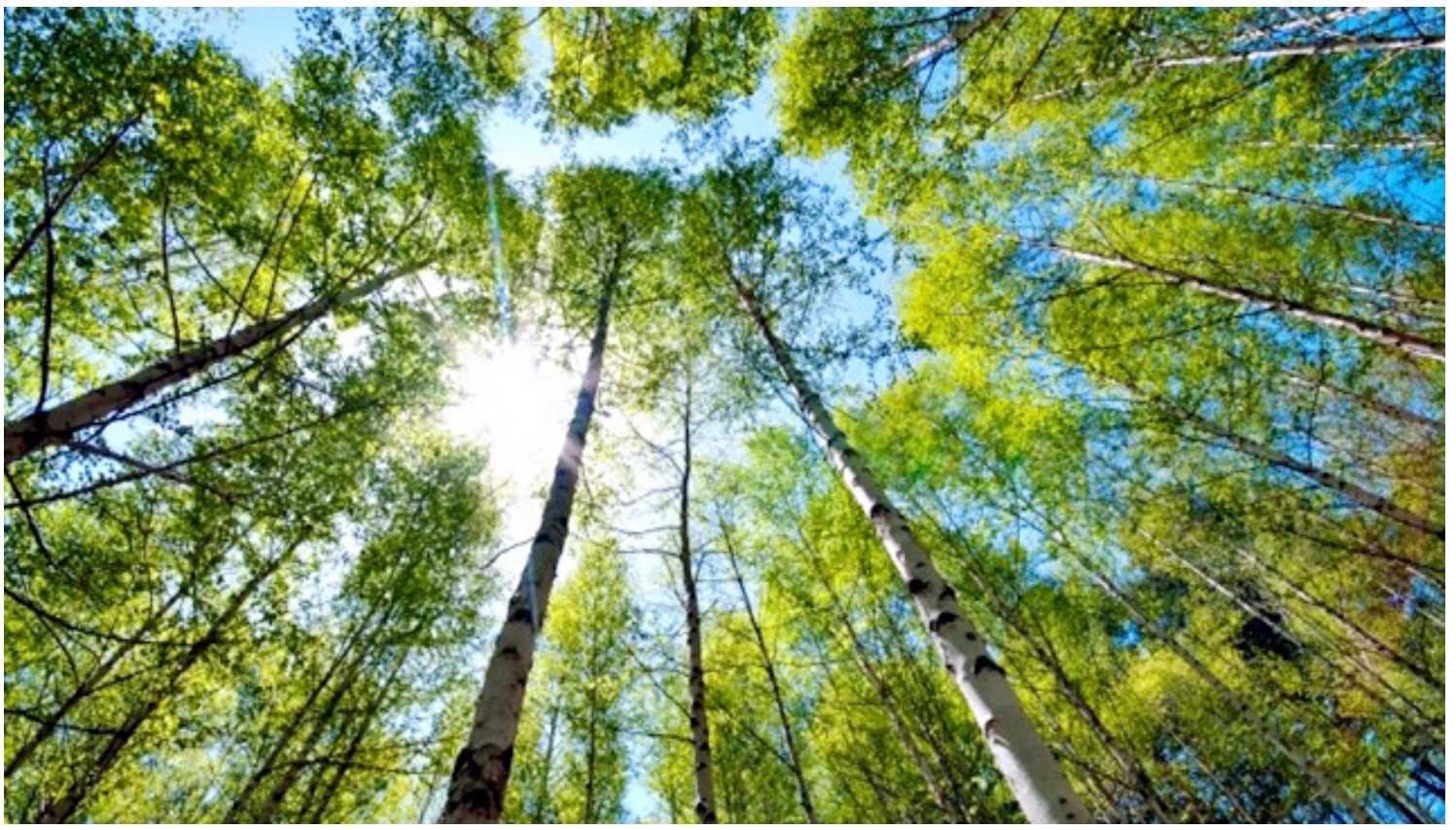
2020. 01. 13 | 732호

발행처 : 산림환경공단(유) / 발행인·편집인 : 김현중
전북 임실군 성수면 춘향로 2530 / 창간일 2002년 3월 1일
등록일 : 2001년 12월 7일 / 등록번호 : 전북 다 01283
인쇄인 : (주)아이앤피 권영근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7길 71
전 화 : 0502-260-6000 / 팩 스 : 0502-261-6000

사단법인 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

주간 THE FOREST ENVIRONMENT NEWSPAPER WWW.iFOREST.KR 지구를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산림환경신문

산림청, 신남방 지역에서 탄소배출권 사업 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REDD+ 추진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산림부문 REDD+ 중장기 추진계획(2020-2024)' 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 추진계획은 신기후체제(' 21~)에서의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신남방국가, 북한 등 개도국에서의 REDD+ 이행 감축 실적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실제로, 산림청은 REDD+ 시범사업을 ' 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 18년에는 4개국까지 사업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산림청은 '숲속의 한반도, 숲속의 지구' 라는 비전 아래 개발도상국 및 북한 산림황폐화 방지 REDD+ 사업 추진으로 7백만 ha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막는다.

또한, 개도국을 포함한 북한에서의 REDD+ 사업 추진 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15만 톤 중 약 13%에 해당하는 최대 42백만톤의 탄소배출권 확보에 도 기여한다.

이를 위해 개도국 국가·준국가 REDD+ 이행 및 협상 대응, 북한 REDD+ 기반 구축, REDD+ 거버넌스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8개 세부 실행 과제를 추진한다.

8개 세부 실행 과제는 시범사업 마무리, 국가·준국가수준 REDD+ 추진 모델 마련, 차세대 신규사업을 위한 국가 및 지역 발굴, REDD+ 국내외 협상 및 제도화에 대응, 북한 REDD+ 추진 시나리오 제시, 북한 REDD+ 이행 사전준비 및 잠재효과 분석, 전담조직, 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 민간분야, 국제기구 등과의 협업 확대 등이다.

산림청 안병기 해외자원담당관은 "REDD+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다." 라며, "신남방 국가 및 북한을 포함한 개발도상 국가와의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김가영 기자
(desk@forestnews.kr)

연말 맞아 '송년 작은 음악회' 개최

- 산림청, 아름다운 선율로 훈훈한 연말 마무리 -

이웃사랑참사랑 연주단은 지난 12월 27일 정오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에서 정부대전청사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송년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송년 작은 음악회에는 이웃사랑참사랑 연주단원 및 정부대전청사 색소폰 동호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연주단은 사랑으로(해바라기) 숨어우는 바람소리(이정옥), Yesterday(비틀즈), SAINT CATHERINE(H.F. HEMY 작곡), 캐롤 메들리, 창밖을 보라, 아모르 파티(김연자), 아름다운 강산(이선희), AULD LANG SYNE(작별) 등의 색소폰 합주 및 독주로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및 방문객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는 2019년 한 해를 아름답고 훈훈한 음악으로 마무리하고자 정부대전청사관리소가 후원하였다.

이웃사랑참사랑 연주단은 2001년에 창단되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곡을 소재로 평소 생생한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송년 작은 음악회에 참여한 정부대전청사 색소폰 동호회는 대전정부청사 근무 직원들의 건전한 취미 활동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행복한 직장생활을 이루기 위함을 목적으로 2016년 5월 창립되었다.

정민희 기자
(desk@forestnews.kr)

산불진화헬기 확충하여 대형산불 대응한다!

- 산림청, 헬기(S-64) 2대 추가 도입으로 대형산불 진화능력 향상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재난성 대형산불 증가 추세로 강풍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초대형 헬기 2대를 추가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에도 봄철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은 높새바람 등 잦은 강풍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4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 현장에 진화헬기 68대가 투입되었으나 대형·초대형급 헬기는 48대로 턱없이 부족해 강풍에도 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의 추가 도입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추가 도입한 초대형 헬기(S-64) 2대는 강릉과 원주 등 강원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산불 공중진화 능력을 높이고 대형산불에 보다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초대형 헬기는 물 탑재량이 대형헬기의 약 2.5배인 8천리터로 45초 이내에 물을 담수하여, 한번 출동으로 가로 30m, 세로 210m 범위에 발생한 대형산불 진화가 가능하여 매우 효과적인 기종이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초대형 헬기는 자동비행조종장치, 디지털 조종실 계기장치, 지형충돌 경고장치, 야간 NVG 조명 등이 설치되어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다.

또한, 2019년도 추경예산으로 반영된 초대형 헬기 1대는 2022년 도입되어 강원지역에 추가 배치될 예정으로 동해안 대형 산불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초대형 헬기 2대 추가 도입으로 총 6대의 초대형 헬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할 것" 이라며, "산림인접지에서는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정민희 기자
(desk@forestnews.kr)

2019년 '10대 뉴스 선정' 발표

- 산림청, 1위 '강원도 산불 진화 완료'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19년 산림청 10대 뉴스'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0대 뉴스는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2.13~12.19)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설문조사 문항은 산림청이 2019년 배포한 보도자료(2019년 12월 12일 기준 513건)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2019년 10대 뉴스는 1위 산림청, 강원도 산불 진화 완료, 2위 산림청, 전국 자연휴양림 원스톱 예약시스템 '숲나들e' 본격 실시, 3위 도시 바람길숲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4위 산불특수진화대 등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5위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심포지엄, 6위 산림청,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확산 저지한다, 7위 산림청,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최초 시행, 8위 산림청, 울산 태화강 '제 2호 국가정원' 지정, 9위 산림청-지자체 공동 신청으로 접경지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 등재, 10위 약 10년 만에 내부승진, 산림청장에 박종호 산림청 차장 임명이 선정됐다.

2019년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산림청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작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 강릉, 인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을 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2일 만에 진화를 완료하였다는 소식이다.

당시 산림·임차·소방·군 등 헬기 105대, 진화차 등 장비 1,374대, 진화인력 2만 9천여 명이 투입되었고, 야간 무인항공기 운영을 위해 전담팀 등도 현장에 파견되었다.

다음으로는 전국의 모든 자연휴양림을 한곳에서 예약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숲나들e ' 서비스를 2019년 12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가 뒤를 이었다.

자연휴양림은 전국에 170개가 운영 중이며, 연간 1,5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산림휴양시설로 그간 전국 자연휴양림의 운영 주체가 다르고 예약시스템도 123개나 존재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다.

그 외에도 약 10년 만에 내부 승진한 박종호 산림청장에 대한 소식도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박종호 청장은 임업 현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과 강한 업무 추진력, 적극적인 소통과 솔선수범으로 임업인과 조직 내부로부터 신망받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 산주·임업인 등 산림 관계자들의 기대가 크다.

박동희 대변인은 "산림청 10대 뉴스 선정을 통해 2019년 한 해 산림 정책을 결산하고 국민적 관심과 성과가 컸던 이슈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라며 "2020년에도 국민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홍보하겠다." 라고 말했다.

김가영 기자
(desk@forestnews.kr)

국립산림과학원 인사 - 2020년 1월 1일자

□ 과장급 전보

▲	연구기획과장	황재홍
▲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득자원연구과장	김만조
▲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이임균
▲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고상현

□ 과장급 직위승진

▲	산림보전연구부 산림육성·복원연구과장	원명수

삽주 신품종 개발, 누구나 도전 합니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용석)는 "숲은 사랑, 숲이 국민에게 드립니다." 라는 산림정책과 정부혁신 추진과제에 맞추어 산림자원식물의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품종 심사를 위한 삽주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되는 매뉴얼은 삽주의 기원, 분류, 주요 성분 등 삽주의 일반특성과 재배환경·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총 망라하였다.

특히, 삽주 신품종을 개발·출원하기 위한 특성조사에 필요한 조사기준과 세부형질 측정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여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매뉴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품종육성기관 및 지자체에 발간책자를 배포하는 한편, 온라인 게시를 통하여 신품종을 육성하고자 하는 개인 육종가와 일반국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용석 센터장은 "우리 품종센터에서는 유용한 산림자원 식물을 선정하여 매뉴얼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최근 육성방향에 맞춘 특성평가로 신품종 개발이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김동한 기자
(desk@forestnews.kr)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해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받는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 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오는 1월 15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 국가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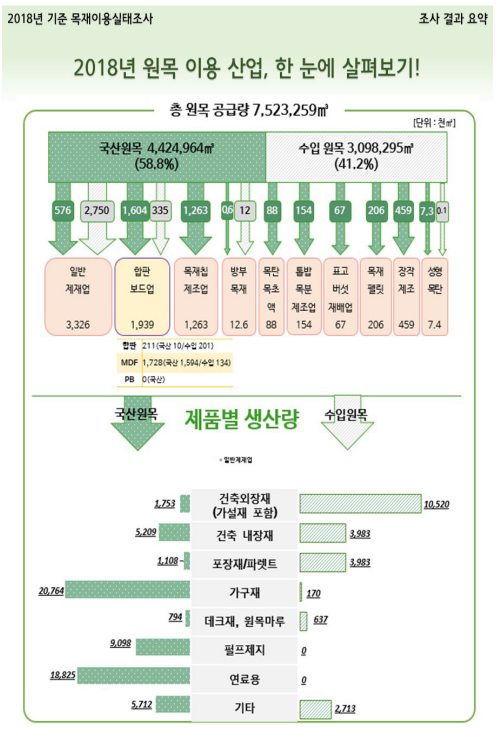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에 대해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 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에서 지원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산림청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빠짐없이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길 바란다." 라고 당부하였다.

김가영 기자
(desk@forestnews.kr)

2018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산림청, 원목 총 구입량 중 국내산 이용률 58.8%로 상승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18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국내산 원목 이용률이 58.8%로 2017년 대비 3.2%p 증가했다고 밝혔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 용도별로 원목의 수요·공급, 원목으로 생산된 목재제품의 생산·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국내산 원목 이용률이 증가한 반면,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원목 구입량은 2016년부터 감소해 2018년에는 7,523,259㎥로 전년 대비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경기 위축으로 합판·보드업(▲11.4%), 일반제재업(▲10.4%), 목재칩 제조업(▲11.8%) 분야에서 원목 구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목재펠릿(61.1%)과 톱밥제조업(23.2%), 장작제조업(28.9%) 분야에서는 원목 구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목재제품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목재펠릿(58.4%), 목재칩 제조업(22.6%), 장작 제조업(28.9%), 톱밥(13.8%)가 2017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일반 제재업(▲6.2%), 합판·보드업(▲5.4%) 등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목재펠릿은 숲가꾸기 산물 등을 파쇄·건조·압축해 만든 목재연료로 재생이 가능해 친환경적이다.

이 밖에 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는 705개고, 이들 업체의 매출규모는 2조 1천 916억 원으로 파악됐다.

업체당 평균 매출규모는 31.1억원이고, 10.4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표된 '2018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g.go.kr) → 분야별 산림정보 → 통계자료실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 통합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실(☎02-6393-2628)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우리 산림은 70년대 집중적인 조림과 산림보호 정책으로 목재 수확기에 도달했다." 고 밝히며 "산주의 소득증대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정책을 펼쳐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김경현 기자
(desk@forestnews.kr)

'국가산림문화자산 14개소' 지정

- 산림청, 울릉도 황토구미, 봉화 우구치 철쭉 등 -

울릉도 '황토구미'

봉화 '우구치 철쭉'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의 생태·경관·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찾아 매년 국가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올해에는 울릉도 황토구미, 봉화 우구치 철쭉, 하동 화개 벚꽃길 등 14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숲, 나무, 자연물, 유적지 등을 대상으로 산림문화 가치를 조사·평가하여 지정한다. 산림청은 이번에 지정한 14개소를 포함한 총 60개소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한 국가산림문화자산 중 '울릉도 황토구미' 는 조선 초기부터 이곳의 황토를 임금에게 진상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봉화 우구치 철쭉' 은 옥석산 정상 부근에 형성된 철쭉군락지로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하동 화개 벚꽃길' 은 고목으로 이루어진 벚나무 가로수길로 심미·경관적으로 우수하여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되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림문화자산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우리의 숲에 얽혀있는 유·무형 산림가치를 찾아내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형성된 숲과 나무, 이야기 등 유·무형의 산림문화 자산을 지속적으로 찾고 보존하여 산림문화 가치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김가영 기자
(desk@forestnews.kr)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근로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59명 모집 -

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청년 실업자 및 민간일자리 창출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산림재해일자리 분야(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총59명을 1월중 선발완료 할 예정이며 산불예방, 소나무재선충병, 산림보호 활동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참여자격은 2020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영월군으로서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 시행기관에서 정한 선발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참여 신청은 오는 1월 13일까지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서은경 소장은 "겨울철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산불위험 경보가 유지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등 산림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겠다." 고 말했다.

김현민 기자
(desk@forestnews.kr)

수원국유림관리소,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완료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연무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과 공기정화에 우수한 식물을 식재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에 효율적인 수종들을 식재하고 높은 교육효율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연무초는 조성된 숲의 명칭을 함께 어울리며 자라나는 숲이라는 뜻의 '어울림' 으로 정해 자라나는 학생들이 마음껏 이용하도록 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김진 소장은 "어울림 숲을 이용하는 연무초 학생들이 산림의 공익적 효과를 통해 높은 학업 성취 능력을 제고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전재룡 기자
(desk@forestnews.kr)

인제국유림관리소, 산불진화대 쉼터 준공

- 산불진화근로자 처우 개선 및 산불발생 시 신속 대처 여건 마련 -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홍규)는 지난 12월 20일 산불진화대 쉼터 신축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쉼터는 연면적 200㎡에 2층 구조로 식당과 쉼터 2실, 샤워실, 차고, 자재 창고 등을 배치해 산불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산불진화대 쉼터 건립은 2019년 4월 강원도 인제·속초·양양·강릉지역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해 대형산불 최일선에서 화마와 온몸으로 싸우며 고생하는 진화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안으로 추진됐다.

인제국유림관리소 임홍규 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산불진화대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20년에 공무직 160명과 기간제근로자 251명을 선발할 계획" 이라며 "산불진화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전재룡 기자
(desk@forestnews.kr)

강릉국유림관리소, 갑질근절 선포 및 청렴 결의 서약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지난 1월 2일 새해를 맞아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 근절 선포식과 청렴 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를 하였다.

이번 선포식 및 청렴 결의는 공공분야의 갑질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이주식 소장은 "새해를 맞아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로 서로 상생하는 공정하고 수평한 직장 문화 조성에 올해에도 앞장서겠다." 고 전했다.

김현민 기자
(desk@forestnews.kr)

서울국유림관리소, 예비사회적기업과 손잡다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필)는 예비사회적기업인 ㈜그린아워(대표 이정훈)와 '국유림 활용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에게 산림레포츠서비스(오리엔티어링 등)를 제공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관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식회사 그린아워는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오리엔티어링 스포츠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숲에서 길을 찾는 방법을 터득하고, 지역·계층을 떠나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립되었으며 2019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서울국유림관리소 이상필 소장은 "이번 협력으로 인해 더 많은 국민들이 숲을 경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형 사회적 기업 후보군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전재룡 기자
(desk@forestnews.kr)

구독안내 산림환경신문 0502-260-6000 / www.iforest.kr
구독료 : 1부 2000부 / 월 8000원 / 1년 96000원(48주)
구독료 입금계좌 농협 : 523-01-075501 산림환경공단(유)
국내 산림분야 유일의 온라인 신문 지면보다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산림신문
FOREST NEWS
2020. 01. 13 | 732호
발행처 : 산림신문(주) / 발행인·편집인 : 김가영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번길 9 / 창간일 2017년 5월 29일
등록일 : 2017년 5월 29일 / 등록번호 : 서울 다 50590
인쇄인 : (주)아이앤피 권영근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7길 71
전 화 : 0502-006-6000 / 팩 스 : 0505-261-6000

KWE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

주간 THE FOREST NEWSPAPER WWW.FORESTNEWS.KR 숲을 사랑하는 한국의 산림 정론

경북도, 산림정책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경북산림포럼(이사장 이헌호)과 함께 지난 12월 16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임업인 소득증대 방안 등 새로운 산림정책 발전방안' 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산림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림정책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산림관련 교수, 산림조합 관계자, 산림기술사, 산림관련 단체 대표,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특강, 연구사례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산림포럼 이헌호 이사장은 "산림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미개발 영역이 넓어,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편이며,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림분야 부가가치를 높이는 성장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해법을 고민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고 말했다.

(전)산림청장인 충북대학교 신원섭 교수는 '숲이 희망이다' 라는 특강을 통해 숲의 사회적 가치를 넓히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대해 강조했다.

에밀타케식물연구소 정홍규 이사장은 '일제 강점기의 식물채집가 에밀타케의 여정' 이라는 주제로 식물주권과 생태계보호에 관해 발표했다.

아울러 산림분야 전문가들이 '산림마이크로바이옴 필요성과 전망' (경북대학교 강준원 교수),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 임업' (경북대학교 김동근 교수), '송이산지 보전을 위한 육성 방안' (임재은 산림기술사), '산림단기소득 수종의 탐색과 활용' (영남대학교 이도형 교수), '임업기계화의 발전 방안' (경북대학교 박상준 교수) 등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임업인.산림사업자 소득증대 방안 등 새로운 산림정책 발전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산림포럼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비롯해 지속적인 임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산림소득 창출과 아름다운 산림경관조성 및 산림복지 구현 등, 모든 산림분야 영역에서 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해 경북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설립한 단체다.

민.관 산림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난 2008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5개 분과 100여명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심포지엄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경북 산림산업 발전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도 윤종진 행정부지사는 "경북도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산림을 개발하지 않고는 경북이 발전할 수 없다." 며 "산촌의 일자리를 늘리고 산림소득 창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정민희 기자
(desk@forestnews.kr)

www.wood.or.kr
전화: 050-2260-6000 / 팩스: 050-2261-6000

산림청 산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목조건축설계. 시공.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목구조기술자)의 권익과 목구조기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KOREA WOODEN STRUCTURE ENGINEERS ASSOCIATION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업무
- 양성교육. 자격검정. 경력관리. 경진대회
목구조시설물에 관한 업무
- 구조진단. 관리점검. 설계지도. 시공지도

산림 소득증대 위한 새로운 도약!

- 예천군 임업후계자협의회, 임업소득사업교육 개최 -

경상북도 예천군 임업후계자협의회(회장 김성조)는 지난 12월 23일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임업소득사업교육 및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김은환(한국임업진흥원 부여임산물교육센터)센터장을 초청해 지역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산물재배 임가를 대상으로 임업인 소득증대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단기 소득임산물 분야 산림정책방향과 산림경영계획 수립,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임업 분야 지원제도 및 신청방법, 전문임업인 공모사업 유형별 사업계획 작성방법 등을 교육했다.

특히 산림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산물로 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산림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예천군 임업후계자협의회는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신임 회장에 손영락, 상임부회장 박용제, 내무부회장 김종옥, 외무부회장 신현주씨를 선출했다.

예천군 김학동 군수는 "전문 임업경영 교육을 통해 지역 임업인들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선진임업 견학 및 교육 등으로 임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가영 기자
(desk@forestnews.kr)

영주시, 산양삼 종자생산단지 조성

경상북도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12월 10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 추진 자문단, 영주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 를 가졌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용역사인 ㈜숲길로부터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 실시설계용역 결과보고를 듣고 이를 최종적으로 검토 및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외에도 지속적인 산양삼 종자 공급방안 및 영주 산양삼 브랜드화 실현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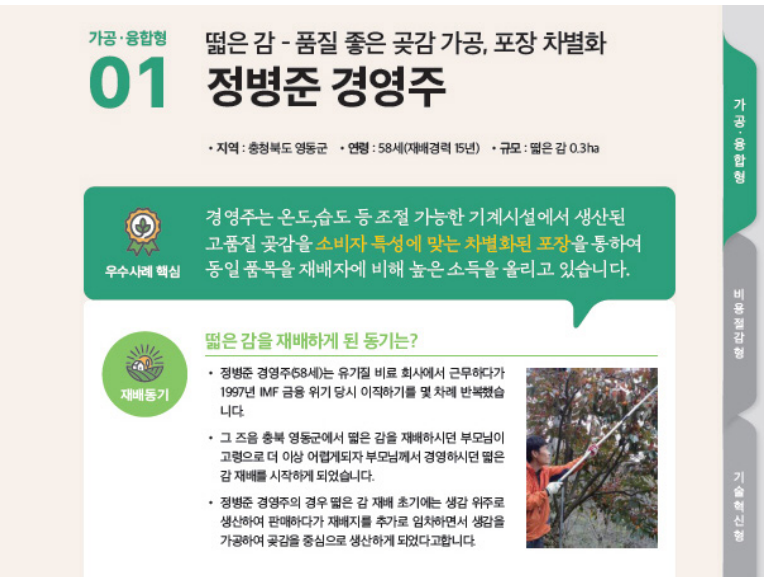
최종 결과보고에 따르면 전체 대상지를 채종장, 종묘장, 생산장, 체험장, 실험장, 관리사 부지 등으로 구획하고 채종장, 종묘장에서는 종자 및 종묘를 생산해 생산장으로 이식, 사업면적을 확대해 나가며 향후에는 산양삼 생산 임가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체험장, 실험장도 함께 조성해 국립산림치유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세계문화유산인 부석사, 소수서원 등 우리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견학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산양삼에 대응하고 영주 산양삼의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여 더 나아가 유통·가공분야까지 확대시켜 영주를 대표하는 산림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영주시 장욱현 시장은 "이번 산양삼 클러스터를 통해 풍기인삼과 더불어 영주가 삼의 고장으로서 새로운 터닝포인트 기회를 가졌다." 며 "완성도 높은 사업진행으로 영주 산양삼의 신뢰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줄 것" 을 당부했다.

박은택 기자
(desk@forestnews.kr)

임업정보 융복합 활용, 고소득 임업인 사례집 발간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지난 12월 13일 임업빅데이터 융복합분석을 통하여 임업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총 34개 고소득 임가의 경영혁신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사례집은 최근 임업통계분야의 각종자료를 융복합분석하여 임산물재배기술, 유통·마케팅, 경영관리 등 총 5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고소득 임업인을 발굴하고, 선정된 임업인 인터뷰 등을 통하여 도출된 개별 경영 노하우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사례집에는 우수 임업인들의 조언을 수록함으로서 귀산촌 희망자의 활용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임업진흥원 구길본 원장은 "이번 우수사례집을 통하여 임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귀산촌 희망자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됐다." 며, "앞으로도 임업부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활용도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보급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김가영 기자
(desk@forestnews.kr)

'대추 재배·유통 활성화 위한 선진임가 포럼'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지난 1월 8일 대추 생산량 증대 및 유통 개선을 위한 선진임가의 재배·유통 노하우 공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선진임가 포럼은 영남대학교 생명응용과학대학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한국임업진흥원과 전국사과대추생산자연구회가 주최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 경북복숭아수출농업기술지원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진다.

대추 재배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통·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인 해당 포럼은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충북대추연구소, 한반도농원, 대추재배 임가 및 희망자(80명 내외) 등이 참석했다.

행사 당일 발표·토론의 주제로는 연도별·주산지별 대추생산 및 소득변화 추이, 알고 보면 쉬운 빅데이터 활용, 신물질을 활용한 균방제 및 연작장해 해소 사례, 5-ALA 활용 연구 사례, 선진 재배 임가 사례 발표, 대추 가공·유통·수출 사업 설명 및 질의 응답 등이 진행됐다.

한국임업진흥원 구길본 원장은 "이번 선진임가 대추포럼을 계기로 대추재배임가간 소통이 활성화되고 대추재배 선진 우수사례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발전시켜 대추 재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정민희 기자
(desk@forestnews.kr)

꾸지뽕나무 활용 간기능 개선 식품 개발 '눈앞'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꾸지뽕나무의 다양한 효능 검증 결과 간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음이 세포 및 동물실험에서 밝혀짐에 따라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등재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꾸지뽕나무는 예로부터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는 약용자원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암, 폐암 등 암세포를 억제하고 알코올로 인한 간세포 회복에도 효과가 있다.

전남지역 꾸지뽕나무 재배면적은 186농가 75ha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생산량 또한 전국 최대를 자랑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산업체에서의 대량 수요가 많지 않아 원료 생산은 많으나 유통에 한계가 있어 원료 판매량이 저조한 편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R&D) 과제 공모에 선정돼 '꾸지뽕나무 고소득 특화산업' 연구사업비 28억 원을 확보, 꾸지뽕 효능 검증을 통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 연구과제는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총괄책임하에 조선대와 목포대 약학대학, ㈜생명의나무, 남도제품유통사업자협동조합, 강산농원 등과 산·학·연 협동 연구팀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를 목표로 식약처에 간기능 개선 등 2건에 대한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 등재를 할 계획이다.

꾸지뽕 추출물의 간기능 개선 효능 검증에 대한 인체 적용시험은 건강상에 문제가 없어보이나 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인 '반 건강인' 80명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간손상 지표(GGT, ALT, AST, ALP)와 안전성, 혈중 중성지방 조절효과, 총콜레스테롤 감소 등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통해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모두 마친 상태다. 현재는 통계처리 등 결과 분석을 하고 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오득실 임업시험과장은 "꾸지뽕나무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등재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되면 대량 원물 공급처 확보로 임업인의 소득증가 및 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도 산림자원의 식의약 산업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정민희 기자
(desk@forestnews.kr)

전북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 공모 선정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지난 12월 13일 산림청에서 공모한 2020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장수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청 주관 전국 공모사업은 산림 신품종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를 통해 새로운 산림생명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북도를 포함 6개 지자체에서 신청해 1차 현지 점검과 2차 발표심사를 한 결과 전국 2개소 선정에 장수군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선정된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은 5ha 정도의 규모로 재배단지, 관리시설 및 기반시설 등을 전액 국비로 '20년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수군은 신품종 재배단지 지역주민 중심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해 번암면 일대를 우리나라 고랭지 산림 종자 및 신품종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유치로 장수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통한 산촌 활성화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김동한 기자
(desk@forestnews.kr)

신 년 사

새로운 희망과 벅찬 기대로 맞이하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 아침을 맞아 임우회 회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에도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지만, 금년에는 이런 사회적 분열과 대립이 잘 봉합되어 대한민국이 더욱 더 발전하는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는 지난 2월 사단법인인 한국임우회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우리 임우회를 더욱 새롭고 알차게 만들기로 결심하고 어언 10개월을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우리 임우회가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조직의 위상과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여, 먼저 우리 임우회의 구성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먼저 회원의 자격을 확대하였는데, 산림청, 지자체의 임업관련기관·단체에서 재직 경력이 있는 분들과 우리 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분들을 포함하여 신입회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에는 약 60여 명이 신입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우회 준회원 가입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 통계에 의하면 전국 산림공무원이 8,600여명인데, 이 중 중앙 공무원이 1,700여 명, 지자체 공무원이 6,9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우회가 시·도 임우회와 유대를 강화하고 임업인 대표단체로서의 구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연합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시·도 임우회장님들과 두 번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연합체의 성격, 정관 정비, 분담금 지원, 회원 편의 제공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등 현재 시·도 임우회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연합체 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 변동된 회원 주소 등 정보를 수정 보완한 회원수첩을 발간하여 유관기관·단체 및 회원님들께 1.6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봄철 동해안 산불피해지 현장을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하였으며(5.24), 지속가능한 국유림 경영·관리의 역량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5개 지방청산림청과의 간담회를 5회 실시하였으며, 신년교례회나 「산의 날」 행사 등 산림청 주관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소통과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우리 임우회를 보는 산림청의 시선도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들이 산재해 있고, 저희 능력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노력에 의해 우리 조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고 이로 인해 상생적 희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부족한 저의 생각을 지지해주고 묵묵히 동조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의 자기희생적인 협조와 귀중한 인내의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임우회 회원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임우회와 산림·임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전진과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모든 역량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후 우리 임우회가 추구할 목표는 산림청의 추진 정책을 적극 밀어주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임업인들이 정부에 건의하는 직불제 실현 등 임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임우회가 국내의 150여 임업단체에서 중심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산림청과 단체와의 정보교류 활성화는 물론 민관의 조정자 역할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림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산림헌장에는 "숲은 생명이 숨 쉬는 삶의 터전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기름진 흙은 숲에서 얻어지고, 온 생명의 활력도 건강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숲에서 비롯된다. 꿈과 미래가 있는 민족만이 숲을 지키고 가꾼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산림을 평생 가꿔온 여러분들은 진정한 「애국자」 입니다. 임우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풍요로운 삶 그리고 자랑스러운 산림문화가 계승되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힘을 더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임우회가 임업계의 문제해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 멀리 걸어갑시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임우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새해를 맞아
한국임우회장 전 진 표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맞손'

- 국립대관령치유의숲 · 강원도교육연수원 업무협약 체결 -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지난 1월 3일 국립대관령치유의숲(센터장 김진숙)과 강원도교육연수원(원장 전제일)이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부문의 양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와 함께 교직원들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대관령치유의숲은 교육·연수과정 교직원의 심신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지속적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교류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홍보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립대관령치유의숲은 2019년 강원도교육연수원 교직원 204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6회 운영했다.

국립대관령치유의숲 김진숙 센터장은 "교직원은 업무의 특수함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다." 면서 "앞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수과정 중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desk@forestnews.kr)

국립횡성숲체원, 2020년 고객·안전헌장 선포!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횡성숲체원(원장 장관웅)은 지난 1월 2일 청태산 정상에서 고객 만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고객 최우선 경영을 위한 고객·안전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횡성숲체원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국민이 고품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결의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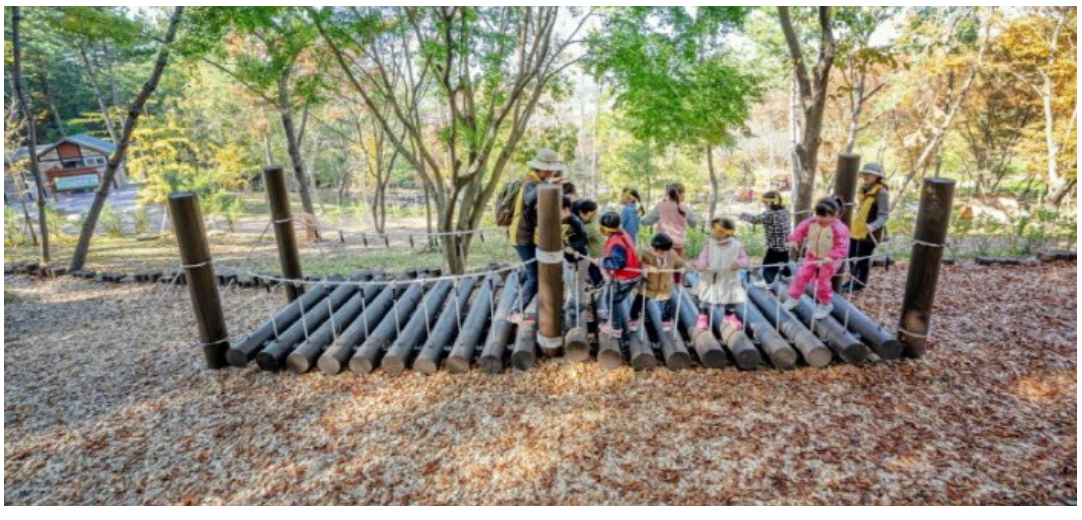
앞으로 숲체원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고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직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객이 참여하는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순회 점검 패트롤(순찰대)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횡성숲체원 장관웅 원장은 "산림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객의 만족과 안전이 최우선" 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정민희 기자
(desk@forestnews.kr)

전남도, 산림청 산림복지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

- 영광 물무산 행복숲 조성으로 숲의 문화적 가치 높여 -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산림청의 2019년 산림복지 경진대회에서 '영광 물무산 행복숲' 조성 사례가 숲의 문화적 가치를 높인 성과를 인정받아 산림복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산림청 소속 지방 산림청 등 총 25개 기관이 참여했다. 산림청은 각 기관이 제출한 다양한 산림복지 우수사례를 창의성, 정책 연계성, 주민 만족도, 협업 등 각 분야를 심사, 전남도를 비롯한 7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영광 물무산 행복숲' 은 영광읍 도동리에 2017~2018년 67억원의 예산을 들여 숲속 둘레길, 유아숲체험원, 황톳길, 물놀이장, 편백 명상원, 소나무예술원, 가족 명상원, 신생아탄생 기념숲 등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 시설을 갖췄다.

특히 영광에 들어서는 첫 산림복지시설로 3대 가족이 함께 하는 숲길과 산림공원, 사방사업, 물놀이장 등 다른 사업과의 단지화로 예산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한 가족사랑 걷기대회, 숲 해설, 밤 줍기 등 다양한 산림 문화행사로 숲의 문화적 가치를 높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 박형호 산림휴양과장은 "황칠·편백 등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의 숲, 휴양림, 산림 레포츠시설 등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의 프로젝트 '블루 투어' 와 연계해 특색 있는 관광상품이 되도록 육성하겠다." 고 말했다.

정민희 기자
(desk@forestnews.kr)

국립산림치유원, 따뜻한 웜(Warm)박스 기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치유원(원장 고도원)은 영주시 소상공인과 협력지역 어르신들에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웜(warm)박스를 기부하는 등의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월 19일 직원들의 중고물품 판매수익과 영주시 소상공인 기부액을 공동으로 모아 지역 노인요양원에 방한 토시 등이 들어있는 웜(warm)박스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주시 소상공인과 공동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는 웜(warm) 박스 전달 외에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재능기부도 함께 펼쳐졌다.

국립산림치유원 고도원 원장은 "지금까지 받은 관심과 사랑을 사회에 환원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며 "앞으로 지역민과 더불어 진행하는 행사를 더욱 확충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정민희 기자
(desk@forestnews.kr)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본격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2019년 12월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신시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새만금방조제 완공 및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2016년 7월)으로 신시도가 육지와 직접 연결됨에 따라 이 지역에 관광 및 휴양 수요가 급증하여 2018년 사업추진이 확정되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2021년 개장한다.

지난해 군산시가 산업·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책으로 휴양림 조성 총사업비가 기존 신규조성 사업의 3배인 230억원(당초 86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중 최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신시도는 고군산군도의 24개 섬 중 첫 관문에 위치한 가장 큰 섬이자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천혜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배출 없는 친환경휴양림으로 조성하고자 휴양림 내 내연기관 차량의 통행은 전면 금지하고 전기셔틀카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휴양림은 서해의 낙조, 밤하늘과 바다에 투영된 달, 별과 함께 어우러져,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 지쳐버린 몸과 마음을 신시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시설로는 국산목재를 사용하여 전통건축 상징성을 표현한 ‘방문자안내센터’, 신시도 밤하늘의 별을 형상화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아름다운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태양전망대’, 바다위에 떠 있는 달을 형상화한 ‘산림문화휴양관(2동 28실)’, ‘숲속의 집(28동 28실)’, 섬 전체를 전기 셔틀카로 순환할 수 있는 4km의 ‘섬순환로’, ‘유아숲체험원’ 등이 있다.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군산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장비 업체, 자재 등을 지역 업체로 우선 선정하였고, 향후 휴양림 관리 인력에 지역인재 선발, 지역특산물 판매장 운영, 청년창업 푸드 트럭 장소제공 등 다각도로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 “신시도자연휴양림은 신시도의 산과 바다가 만나는 우수한 자연 및 해양경관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휴양림으로, 도시민들을 위한 쉼터이자 다양한 숲과 해양 체험·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의 지능과 감성, 신체 발달을 돕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휴양림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권역과 군산시 지역의 건설업 및 인력을 활용할 예정이라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김동한 기자
(desk@forestnews.kr)

‘산림휴양관’ 조감도

제6대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취임

- 국립자연휴양림, 미래지향적 산림휴양정책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지난 1월 1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6대 신임 소장으로 이영록(58)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영록 소장은 대구 출신으로 영남대 임학과 졸업 후 산림청에서 국제협력과, 산림휴양등산과, 산림경영소득과, 산사태방지과 등을 거치며 다방면으로 산림정책에 대한 업무 역량을 넓혀 왔고, 또한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을 역임하며 효율적인 인력·조직 관리 및 최일선 현장 경험 등을 쌓아 왔다.

특히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창설 멤버로, 휴양림 근무 당시 고객지원과, 사업과 등에서 전반적인 휴양림 업무를 습득하였고, 이후 산림청 등산지원팀, 산림휴양등산과, 숲길정책팀 등에서 산림휴양정책 입안 등의 업무를 맡는 등 오랫동안 산림휴양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키워왔다.

앞으로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이영록 신임 소장은,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고객 감동’, ‘책임 경영’, ‘사회적 가치실현’ 을 국립자연휴양림 핵심가치로 두고 운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2020년 국립자연휴양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무식과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등을 위한 반부패·청렴결의 및 갑질근절 선포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 “ ‘고객중심의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국민들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는 산림휴양·교육 콘텐츠 개발’, ‘ 산림휴양시설 안전관리 체계 강화’, ‘국가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실현’ 등을 강조” 하며, “국립자연휴양림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현 기자
(desk@forestnews.kr)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봉화군의 보호식물’ 발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원장 김용하)은 봉화군과 함께 ‘백두대간 봉화군의 보호식물’ 도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봉화군의 각 산지별 식물에 대한 현장 정밀 조사 및 식물표본과 문헌자료 등을 토대로 본 도감을 제작했으며, 식물학적 정보 및 분포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특히 자생지에서 확보한 사진 자료를 수록해 기존 도감에 비해 식물의 자생지 내 형태적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

‘백두대간 봉화군의 보호식물’ 도감에는 봉화군에 분포하는 식물 중 개체수의 감소가 우려되는 ‘희귀식물’, ‘특산식물’, ‘기후변화취약식물’ 등 100종을 선정해 수록했다.

‘희귀식물’ 은 산림청에서 멸종위기종 보전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화한 식물이며 ‘특산식물’ 은 한반도 일대에서만 생육하는 우리의 고유식물이고 ‘기후변화취약식물’ 은 기후변화에 따른 분포지 변화, 번식의 어려움 등이 우려되는 식물이다.

도감을 집필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연구진에 따르면, 한반도의 주요 희귀식물, 특산식물, 기후변화취약식물의 다수가 봉화군 내에 모여 자란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책자는 1월 중순부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홈페이지-산림생물연구-연구자료실 게시판에서 PDF 파일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김용하 원장은 “본 도감이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식물의 자생지 보전과 더불어 봉화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식물의 삶을 들여다보는 첫 걸음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중 기자
(desk@forestnews.kr)

국립공원, 해맞이 · 해넘이 명소 10곳 선정

- 방한복 등 안전장비 갖추고 탐방로 선택해야-

지리산 '천왕봉' 일출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2019년 한해를 정리하고, 경자년(庚子年) 새해 행복을 기원할 수 있는 국립공원 해맞이 · 해넘이 주요 명소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추천하는 해맞이 명소는 지리산 천왕봉 · 바래봉, 설악산 대청봉, 북한산 백운대, 태백산 함백산 5곳이다.

해넘이 명소는 태안해안 꽃지해변, 한려해상 달아공원 · 초양도, 변산반도 채석강 · 적벽강, 다도해 정도리 구계등 5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맞이 명소는 국립공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새해 소망과 다짐을 더욱 특별히 만들어줄 최고의 명산으로 선정됐다.

지리산 천왕봉은 지리 10경 중 제 1경으로서, 첩첩이 능선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의 장엄미와 웅장함이 압도적이다. 천왕봉으로 향하는 산행이 부담스럽다면 초보자도 힘들이지 않게 2시간 내외로 오를 수 있는 지리산 바래봉 눈꽃 해맞이를 추천한다.

설악산 대청봉은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와 수묵화과 같은 화채능선 산줄기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북한산 백운대는 우뚝 솟은 인수봉과 어우러지는 해맞이는 남다른 풍광을 자랑하며, 태백산 함백산은 눈부신 눈꽃 일출이 즐거움을 준다.

붉은 노을 낭만 가득한 감성을 채울 수 있는 서해안 해넘이로는 태안해안 꽃지해변과 변산반도 채석강 · 적벽강이 선정됐다.

명승 제69호 할미 · 할아비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꽃지 해변의 일몰은 서해안 3대 낙조 중 하나다. 변산반도의 채석강 · 적벽강은 석양이 비칠 때 더욱 붉은색으로 물들어 황홀한 일몰을 경험할 수 있다.

한려해상 달아공원은 남해안 최고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전망대에 올라서면 한려수도 작은 바위섬 사이로 지는 일몰이 장관을 이룬다.

다도해에서는 정도리 구계등에서 갯돌이 만들어내는 음악소리와 함께 멋진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관매도 명품마을에 머물면서 섬마을의 정취를 천천히 즐기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좋다.

또한 각 공원별 입구에서 해맞이 탐방을 준비하는 탐방객을 위해 핫팩 제공 및 차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가야산탐방원, 설악산탐방원에서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희망캠프를 운영한다.

국립공원공단 문명근 탐방복지처장은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해맞이 · 해넘이 명소에서 올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의 시작을 맞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은택 기자
(desk@forestnews.kr)

제주시산림조합, 이웃사랑 성금 200만원 기탁

제주시산림조합(조합장 김근선)은 최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를 방문해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제주시산림조합이 주최한 제3회 임산물 홍보대전에서 임산물 생산자 단체 등과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도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시산림조합 김근선 조합장은 "행사에 참여해주신 많은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여 우리 지역사회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정민희 기자
(desk@forestnews.kr)

산림조합중앙회, 2020년 신년시무식 개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직무대행 부회장 소기홍)는 지난 1월 2일 산림조합중앙회 본부청사 회의실에서 2020년 경자년을 맞아 신년시무식을 개최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조합원과 임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결의하였다.

신년 시무식에서 소기홍 부회장은 "2020년 새롭게 바뀌는 경영진과 함께 임직원 모두가 연대라는 조합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과 임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경사롭고 자랑스러운 한 해로 만들자" 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산림조합중앙회는 신년시무식을 마친 후, 소기홍 부회장 주관으로 본부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혁신을 위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회의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사업발굴, 조직개편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지난 해 회장 및 상임감사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는 오는 1월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정민희 기자
(desk@forestnews.kr)

치악산 비로봉에서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다!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노윤경)는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치악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따뜻한 차와 핫팩을 무료로 제공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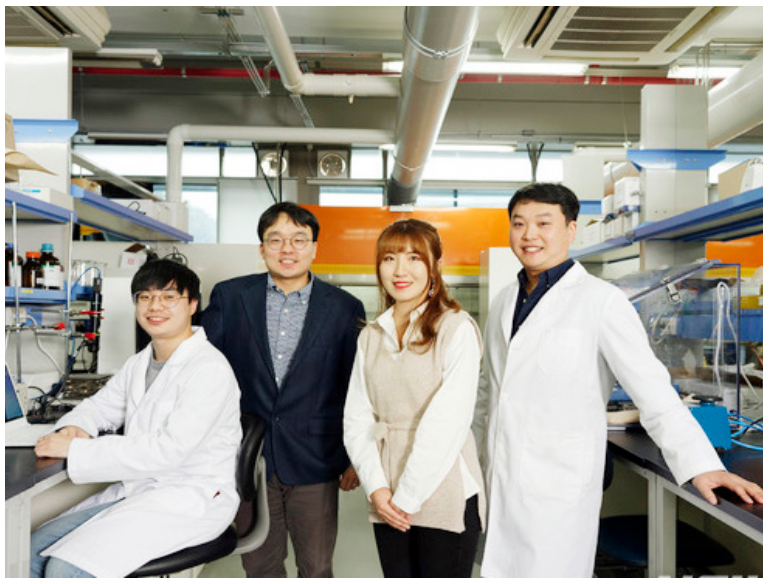
치악산국립공원 비로봉은 높이 1,288미터로 치악산의 주봉으로 새해를 맞이하려는 탐방객들에게 인기가 좋은 해돋이 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떠오르는 새해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비로봉에서 해돋이 맞이는 황골탐방지원센터나 구룡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하는 코스로 진행되었으며 탐방로 곳곳에는 국립공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탐방객 안전관리에도 집중하였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이대진 탐방시설과장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치악산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라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desk@forestnews.kr)

폐목재 속 '리그닌' 제대로 쓸 정량 지표 나와



폐목재 등에 많이 포함돼 있는 '리그닌' 을 차세대 바이오 소재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UNIST(울산과학기술원 · 총장 이용훈)은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이동욱 교수팀이 리그닌 분자의 뭉침과 퍼짐을 결정하는 힘이 '소수성 상호작용' 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를 조절할 방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리그닌을 다른 물질과 섞어서 유용한 물질로 만들 때, 경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량적 지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리그닌은 목재의 30~40%를 차지하는 고분자 물질로, 식물 세포벽의 주성분이다. 바이오 연료나 종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오며, 연간 생산량이 약 5000만t에 이르지만 대부분 폐기되거나 단순한 땔감으로 사용됐다.

최근에는 리그닌의 환경적 · 경제적 가치에 주목해 바이오 연료나 바이오 플라스틱, 분산제, 접착제 등의 재료로 제안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 산업에 쓰인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2%에 그친다.

이는 리그닌의 분자구조가 불규칙하고 응집력이 강해 다른 물질과 섞이지 않아 상용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리그닌을 고부가가치 생성물로 만들려면 리그닌 분자간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연구진은 아주 가까운 거리 간의 힘을 측정하는 장비(SFA)를 이용해, 수용액에 있는 리그닌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을 측정했다.

그 결과 리그닌의 응집력에는 물을 싫어하는 물질끼리 뭉치려는 힘, 즉 '소수성 상호작용' 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

또 리그닌이 포함된 수용액에 전하를 띄는 염(salt)을 넣어주면, 리그닌의 응집력을 조절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염이 리그닌 분자 표면에 달라붙으면서 리그닌 분자끼리 뭉치려는 힘을 차단한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염의 농도를 통해 리그닌의 응집력을 정량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연구팀은 이 원리를 이용해 '활성탄' 의 강도를 높이는 데도 성공했다.

활성탄은 각종 석유화학공정에서 액상에 포함된 독성물질을 흡착해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빠른 유속 때문에 활성탄 입자가 풀어질 수 있는데, 이를 '리그닌-활성탄 복합체' 로 해결한 것이다.

리그닌과 활성탄은 모두 물을 싫어하는 성질이 있어, 수용액에서 서로 강하게 결합했고 복합체가 더욱 단단해진 것이다. 연구팀은 복합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염의 농도를 조절해 다양한 강도를 구현하고 이를 정량화했다.

이동욱 교수는 "산업폐기물로 여겨지던 리그닌의 분자적 상호작용 원리를 분석했고, 리그닌의 상업적 활용에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 며 "정량적 연구결과를 이용하면 리그닌을 각종 석유화학산업과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질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국화학회에서 발간하는 'ACS Sustainable Chemistry & Engineering' 에 지난 12월 2일자로 공개됐으며,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정민희 기자
(desk@forestnews.kr)

구독안내 산림신문 0502-006-6000 / www.forestnews.kr
구독료 : 1부 2000부 / 월 8000원 / 1년 96000원(48주)
구독료 입금계좌 농협 : 351-1065-7900-43 산림신문(주)
국내 산림분야 유일의 온라인 신문 지면보다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제천시, 목재산업 거점도시로 거듭난다

- 산림청 예산 53억원 확보, 목재문화체험장도 조성 -

충청북도 제천시(시장 이상천)가 전체 면적의 73%를 차지하는 산림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목재산업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천산림조합과 협력해 조림과 숲 가꾸기에 국 · 도비 45억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산림청으로부터 17% 증액된 5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는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국 · 도비 비율 65%이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림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숲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는 이미 확보된 예산을 투입해 목재체험과 교육을 통한 목재문화보급 활성화는 물론 목재문화체험장도 설치한다.

앞으로 산림에너지 자립마을조성(44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200억원)을 위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들의 추진으로 제천지역 산림에서 생산되는 국산목재를 활용한 랜드마크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며 "제천의 73%를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해 목재산업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으로 목재산업 거점도시로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김경현 기자
(desk@forestnews.kr)

사단법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KOREA WOODEN STRUCTURE ENGINEERS ASSOCIATION

산림청 산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목조건축설계, 시공,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목구조기술자)의 권익과 목구조기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업무	목구조시설물에 관한 업무
양성교육, 자격검정 경력관리, 경진대회	구조진단, 관리점검 설계지도, 시공지도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는 2001년부터 고용노동부지원사업으로
'전국 목조기술경기대회'를 주최 ·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는 2000년부터 자격기본법에 의한
'목조건축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전화 : 050-2260-6000
팩스 : 050-2261-6000
www.wood.or.kr
wood@wood.or.kr

성주군,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큰 인기

- 오는 6월까지 다양한 전통한옥체험 운영 -

경상북도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2019년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에 선정돼 전통한옥 활성화를 위해 다채로운 전통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2월 24일, 수륜면 청휘당(역사충절공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브 공연' 을 개최하여 지역민 및 관광객들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었다.

이날 행사는 고려충절 도은 이숭인의 유허지인 '청휘당(晴輝堂)' 의 한옥에서 산타와 함께하는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 아이들과 함께하는 매직쇼, 어른들의 감성을 채워줄 통기타 공연, 모두 함께 즐기는 코미디 저글링 쇼 등으로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했다. 또한, 쌀쌀한 날씨에 성주청년회의소(JC)의 무료 어묵나눔행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했다.

군은 최근 체험형으로 변모하고 있는 국내 관광 트렌드와 한국 고유의 문화체험을 선호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고택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다양한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6월까지 진행한다.

김동한 기자
(desk@forestnews.kr)

하동 최참판댁 '한옥문화관' 목조건축 우수사례 선정

경상남도 하동군(군수 윤상기)은 최근 개관한 최참판댁 한옥문화관이 산림청에서 주관한 2019년 공공목조건축 우수사례 공모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목조건축 우수사례 공모사업은 공공분야 목구조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목조건축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공유하고 벤치마킹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공모사업 심사는 목조건축 계획·설계의 적정성, 목구조 반영 비율, 목조건축의 독창성, 파급 효과성, 노력도 및 홍보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 선정됐다.

군에 따르면 최참판댁 한옥문화관은 심사기준 가운데 특히 설계·독창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응모한 10개 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림청장 상장과 포상금 150만원을 받았다.

군은 이번 목조건물 우수기관 선정으로 받은 포상금은 지역 청소년들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기금으로 전액 기탁했다고 밝혔다.

최참판댁 한옥문화관은 고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 '토지' 무대인 악양면 평사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전통문화체험형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한옥으로 지은 숙박시설이다.

기와지붕에 전통한옥구조의 팔작목구조 1동(안채), 맞배목구조 1동(사랑채), 우진각목구조 2동(동·서별채) 등 4동 5실로 1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17억원을 들여 건립해 지난 11월 정식 개관했다.

하동군 최관용 산림녹지과장은 "최참판댁 한옥문화관이 목조건축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한민국 전통 가옥구조 계승과 목조건축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정민희 기자
(desk@forestnews.kr)

2020 세계유산 축전, 안동·경주·영주 공동개최!

경상북도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문화재청이 공모한 '2020 세계유산 축전' 사업에 경북도가 선정돼 3개 지자체에서 분산 개최되며, 국비 20~25억 원을 확보했다.

2020 세계유산 축전사업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국민과 더불어 향유하고자 문화재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공모를 추진했다.

'인류의 문화가치 경북에서 꽃피다' 라는 주제로 2020년 안동·경주·영주 일원에서 진행되는 세계유산 축전은 총사업비가 40여억 원이나 투입되는 만큼 대규모 문화행사로 열릴 예정이다.

세계유산을 소재로 한 공연·전시 등의 가치 향유 프로그램과 세미나, 교육, 투어 등의 가치 확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최 시기는 각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해 문화재청과 협의해 결정된다.

특히, 축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안동 하회마을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실경뮤지컬, 아시아 도산별시, 미디어 아트 전시, 서원의 하루, 유네스코 세계유산 체험, 세젤귀(세상에서 제일 귀한)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하고 볼거리 가득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전 국민과 공유하고 체험하는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그 후 1차(서면) 및 2차(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경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경북도와 안동시·경주시·영주시 등 관련 지자체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공모신청을 준비한 결과, 내용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은 우리나라 세계유산 14건 중 5건을 보유한 최다 보유 지역이며, 그중에서 안동시는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 3건, 4곳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안동시 권영세 시장은 "올해 세계유산 축전 개최는 안동의 세계유산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세계유산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라며, "안동의 세계유산을 전 국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 고 했다.

김경현 기자
(desk@forestnews.kr)

울진산림항공관리소, 따뜻한 나눔 불우이웃 위문 방문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울진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성택)는 연말을 맞이하여 울진군 기성면 소재의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2곳을 찾아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과 쌀·과일 등을 전달하고 온정의 대화를 나눴다.

울진산림항공관리소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소외 계층에 지속적으로 기부 활동을 펼치며 나눔의 기쁨을 통해 행복을 공유하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기성면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매년 위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울진산림항공관리소 김성택 소장은 "울진군에 속한 국가기관으로서 이웃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꾸준한 사랑 나눔을 통해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며 한다." 라고 밝혔다.

김민중 기자
(desk@forestnews.kr)

김용관 항공본부장,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방문

- 가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종료 격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김용관)은 지난 12월 27일 「가을철 산불특별대책기간」(11월1일~12월15일)이 종료함에 따라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준태)를 방문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 대원들을 격려하였다.

산림항공본부 김용관 본부장은 "국가 헬기 운용기관의 핵심 중추가 되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림항공본부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소통과 화합을 강조" 하였다.

또한, "「가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함과 동시에 2020년도 산불방지의 최전선에서 만전을 기하여 달라" 고 당부하였다.

김현민 기자
(desk@forestnews.kr)

경자년(庚子年) 새해 안전비행 다짐!

-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안전비행을 위한 안전의식 고취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진천산림항공관리소(소장 심태섭)는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2일 오전 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시무식과 더불어 13년 무사고 안전비행 목표를 위해 항공안전 결의를 다지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시무식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무사고 산림항공' 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산불진화와 산악인명구조, 산림사업 자재운반,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등 주요 업무수행에 앞서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을 것을 다짐했다.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심태섭 소장은 "2020년에도 직원 모두가 자신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여 직장에서도 항공안전을 생활화 실천과 상호간 소통과 공유를 통해 13년 무사고 안전비행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 을 당부했다.

김현민 기자
(desk@forestnews.kr)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새해 신년맞이 시무식 개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위동)는 2020년 1월 2일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전 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10년 무사고 안전비행 목표 달성을 위한 시무식 및 안전결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통해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사업지원, 산악인명구조임무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항공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 김위동 소장은 "경자년 적극행정을 통해 모든 임무에 앞서 항공기 사고예방을 위해 전 직원들이 항공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자." 고 말했다.

김현민 기자
(desk@forestnews.kr)

무등산에서 발목부상 등산객, 헬기로 이송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민병준)는 지난 12월 31일 오후 3시께 광주광역시 무등산 장불재에서 산행 중 넘어져 발목골절이 의심되는 장모(62 · 광주광역시)씨를 산림청 헬기로 이송했다.

신고를 받은 119 무등산산악구조대와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소속 산림청 헬기 1대가 현장에 출동해 장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 민병준 소장은 "겨울철 등산객들이 안전장비를 준비하지 않아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며 "산행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급작스러운 일기변화에 대비해 안전장비를 꼭 준비하라." 고 당부했다.

김현민 기자
(desk@forestnews.kr)

경자년에도 청렴하고 공정한 산림경영 다짐!

- 양산국유림관리소 시무식 및 청렴결의대회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지난 1월 2일 2020년 자체 시무식을 갖고 「청렴결의」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전 직원은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 만들기」 위한 청렴 결의하여 국민과 임업인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산림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여 형평성 있는 산림행정을 구현할 것을 맹세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 '부정부패 없는 산림행정 구현' 을 위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체 공직자 자정운동을 전개할 것" 이며, "유관기관과의 청렴문화정착을 위한 협약체결 등 적극적인 부패척결 활동을 실시할 계획임" 을 밝혔다.

박은택 기자
(desk@forestnews.kr)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재해일자리(2020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5명)의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발절차는 모집 공고 후 서류심사 및 체력검정과 면접을 통해 1월 21일까지 최종선발 하며, 사업기간 동안 근로자들은 산불예방 및 진화,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산림 연접지 등 소각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활동 지원,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등의 산림보호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편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을 조기에 선발·사역하여 산불예방·진화분야, 산림보호분야, 산림병해충방재분야 등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장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고용창출 등 일석이조의 사업이 될 뿐만 아니라 아니라 우리지역 산림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 신경수 소장은 "영덕관리소는 경북 동해안지역 등 6개 시·군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추기관으로 산불재난은 국·사유 구분 없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진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산림자원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 라고 했 말했다.

또한 "우리의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예방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 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박은택 기자
(desk@forestnews.kr)

양산국유림관리소, 논·밭두렁 불법소각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다가오는 봄철까지 불법소각(논·밭두렁 및 쓰레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2-5월) 결과 전체 산불 520건 중 소각산불이 127건으로 24%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년(101건)에 비해 26% 증가했다.

이에, 산불발생이 원인이 명확한 불법소각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개선 및 산림인접지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차단 하기 위함이다.

특히 불법소각 단속 기간은 오는 오는 5월 15일까지이며,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인접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자,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허가 없이 불을 놓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52건의 불법행위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은택 기자
(desk@forestnews.kr)

‘사랑의 땔감 나누기’ 로 훈훈한 온정 퍼져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지난 12월 5일 홀몸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집으로 찾아가 생활·난방용 화목을 무료로 드리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약88㎥)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국유림 숲가꾸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 부산물을 모아 두었다가 땔감 나눔 행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된 17가구에 화목용 땔감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쌓아주고 정리도 해주는 등 훈훈한 온정을 나누었다.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이번 사랑의 땔감 나누기는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숲의 공익성과 저탄소 녹색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관리소 직원 뿐 아니라 제천·단양 관내에서 활동하는 국유림영림단 3개단과, 숲가꾸기 패트롤 등 약 40여명이 팔을 걷고 자원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을 매개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땔감 나누기 외에도 주민들에게 더 다양한 산림복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경현 기자
(desk@forestnews.kr)

중부지방산림청 제25대 김원수 청장 취임

-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중부지방산림청은 김원수 부이사관을 제25대 신임 청장으로 부임하여 지난 1월 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임 김원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1993년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장, 산림청 산림복지시설사업단 기획과장 및 목재산업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최근에는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을 역임하는 등 소중한 우리 산림자원의 육성부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산림행정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김원수 청장은 “정부혁신 추진 및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지역민, 임업인,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서비스 제공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이를 통해 산림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사람중심의 산림관리와 이용 모델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국유림 13만ha를 관리하면서, 충청권 국유림 발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김동한 기자
(desk@forestnews.kr)

숲이 주는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지난 12월 13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등 금년도 친환경벌채 사업지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사용된 땔감은 국유림과 연접한 농경지에 그늘 피해를 주거나 주택지 등에 위험이 예상되는 지장목을 제거한 후 수집한 나무로써 지역주민에게 생활밀착형 산림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매년 숲가꾸기 패트롤을 활용하여 제거한 지장목과 산림사업 후 남겨지는 숲가꾸기, 벌채 부산물을 수집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 남상진 소장은 “겨울철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김동한 기자
(desk@forestnews.kr)

충남도, 산림정책 미래 설계로 대한민국 이끈다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가 오는 2028년까지 3조552억원(국비 1조1561억원, 지방비 1조6324억원, 기타 2667억원)을 투입,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산림복지시설 등을 확대한다.

도는 지난 12월 10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도 중장기 산림정책’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양승조 지사와 산림청, 시군, 지역 산림조합, 임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정책 수립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비전 선포를 통해 실천 의지를 대내외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선포한 중장기 정책은 ‘숲으로 그린 행복 충남’ 을 비전으로, 생활환경서비스 확대, 관광자원으로서의 산림가치 증진, 전통적 산림산업 기능강화 등을 추진하는 3대 목표로 짜여졌다.

6대 추진 전략은 산림자원 및 산지관리체계 고도화, 산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임업인 소득안정 및 산촌 활성화, 일상 속 산림복지체계 정착,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실현, 한반도 산림녹화 등 산림정책 인프라 확충 등 10년간 나아갈 방향이 담겼다.

도는 이날 선포한 중장기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시 2028년 전문 임업인이 올해 1963명에서 3045명으로 1082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산림일자리 역시 2466명에서 1만2000명으로 약 1만여명이 늘어나고, 임도밀도 역시 올해 3.89m/ha에서 5.67m/ha로, 약 1.78m/ha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산물 생산액은 2947억원에서 3845억원으로 늘고 산림복지시설은 19개소에서 38개소로 19개소 확충될 것으로 지표를 정했다.

충남도 양승조 지사는 “앞으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산림정책 및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겠다.” 며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산림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경현 기자
(desk@forestnews.kr)

전북도, 산림분야 2020년 예산 국비 803억 확보

- 전년도 641억 대비 25.3% 증가, 사전준비 사업추진 만전 -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 2020년 산림분야 예산에 국비 803억원을 확보하여 전년도 국비 641억원 대비 162억원(25.3%)이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이 미세먼지 대응방안으로 부각되고,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재해예방 사업 등에 집중 투자 함으로써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사업별 국가예산 확보 상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 열섬화현상 완화를 위한 숲 조성 및 조림 등을 위해 국비 155억원 확보, 기상이변에 따른 산림재해에 적극 대응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국비 180억원 확보, 산림복지시설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국비 150억원 확보,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확대로 임업 경쟁력 강화 및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국비 47억원 확보, 생태계보전, 묘목생산보급과 목재산업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국비 23억원을 확보 하였다.

전북도 고해중 산림녹지과장은 "이번에 반영된 2020년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현지확인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수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한 기자
(desk@forestnew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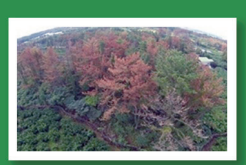
FOREST SHERI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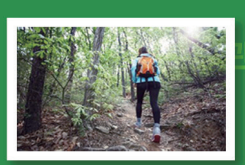
숲과 환경을 지키는

산림보안관

KOREA FOREST SHERIFF'S OFFICE
FOREST ENVIRONMENT NEWS 2001
FOREST SHERIFF 산림보안관

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와 산림환경신문이 함께합니다.


산림병해충


등산안전

산불예방

산사태예방

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는 2001년부터 숲을 살려야 지구가 산다는 구호아래 산림환경감시단을 운영하였고 2016년부터는 지역별로 산림보안관 사무소를 열고 산림환경신문 리포터로서 지역내 숲과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산림보안관은 산림보호(산불예방, 자연재난예방, 산림병해충예찰,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내 위법행위 예방 감시)를 위한 자발적인 민간단체 활동으로 협회에서 소정의 기본, 전문교육을 이수한 회원으로 산림보안관, 산림보안관보, 청소년산림보안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산림보안관은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숲활동을 통하여 산림보호 의식을 고취시키며 산림병해충, 산불, 자연재난 신고 등으로 숲사랑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 |
서울 전재룡, 강원 김현민, 경기 김현수
충북 김우일, 충남 김제현, 전북 김미숙
전남 서장식, 부산 김명주, 제주 고윤권
경남 김용선

가입문의 | 사무국장 박은택
회원지원팀 050-2343-6000
www.gkorea.kr

무주국유림관리소, 취약계층에 땔감 무상공급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지난 12월 31일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22가구에게 110톤의 땔감을 나누어 주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목재 이용가치가 없는 나무를 수집하여 화목을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땔감으로 지원하고자 추진되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무주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22세대로 가구당 5톤씩 총 110톤의 땔감을 사용하기 좋게 잘라 무주국유림관리소 차량으로 수혜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직접 전달하고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발생한 산림부산물을 재활용 함으로써 산불,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화석연료 대체 효과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박은택 기자
(desk@forestnews.kr)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믿고 쓰세요!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로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9-9호, 2019.10.30.)」에서 정한 제재목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은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체를 방문해 목재제품 관련 장부비치 여부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 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홍보를 실시해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안전한 목재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목재제품 취급업체도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말했다.

박은택 기자
(desk@forestnews.kr)